

## 주의와 정보처리 양식이 개인과 집단에서 상관착각 및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

서 용 원 · 한 영 석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심리학 전공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집단에서 상관착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대상에 대한 기대의 차이로 설명한 Hamilton(1991)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McConnell 등(1994)의 실험 패러다임과 Sanbonmatsu(1987)등의 상관착각 패러다임을 조합하여 주의/비주의 조건에서 3가지 정보처리 양식이 상관착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관착각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대한 지각자의 수행평가가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설명하려 하였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개인과 집단의 2수준으로 조작하였으며, 이러한 대상에 대해 기억, 통제, 온라인의 3가지 정보처리 양식을 조작하였으며, 주의 유무로써 주의를 2수준으로 조작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빈도추정지표, 대상할당지표, 수행평가를 측정하였다. 결과를 보면, 첫째 특정 표적인 물이나 집단에 주의를 두지 않았을 경우, 대상이 집단일 때는 기억에 근거한 양식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고, 대상이 개인일 때는 온라인 양식을 강하게 유도할 수 있는 자기 관련된 정보나 주의처치가 없음으로 정보처리 유형간에 차이가 없음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주의 조건 즉, 특정 표적인물이나 집단에 주의를 두었을 경우, 개인조건에서는 온라인과 기억 조건간에 차이를 보였고, 집단조건에서는 정보처리 양식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집단과 개인 대상에 대한 상관착각**  
사람들이 집단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할 때, 그들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자주 보는 행동도 있을 것이고, 자주 보지 못하는 행동도 있을 것이다. 이 때, 사람들은 드물게 보

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수가 적음으로 인해 그 행동을 특이하게 지각할 것이고, 이러한 특이성에 의해 사람들은 집단을 달리 지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Chapman(1967)은 일반적으로 관찰자는 특이하지 않는 자극 보다 특이한 자극에 더 많은 주의를 두게 되며, 특이한 자극에 대한 높은 주의를 그 정보에 대한 더 큰 부호화, 즉 더 깊은 정보처리가 이루어지며, 이는 이후 회상시에 더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적 편파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를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행동이나 특성 지각에 적용해 보면, 실생활에서 다수집단의 성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다수집단의 성원들에 비해서 소수집단 성원들과 접촉을 덜하며, 따라서 자신들의 부적인 행동도 소수집단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특이하게 지각한다. 이와는 반대로, 다수집단 성원들은 소수집단 성원들과 그들의 부적 행동과의 관련성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

Hamilton과 Gifford(1976)는 집단에 대한 이와 같은 차별적인 지각이 Chapman(1967)의 설명처럼 짝진 특이성 효과(paired distinctiveness effect)에 기초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39개의 행동 진술문을 제시하였으며, 각 진술문에는 행위자의 이름과 소속 집단명, 그리고 행동이 기술되어 있었다. 임의의 집단 A에 속하는 성원들에 관한 행동 진술문의 수(26개)는 B집단 성원들에 관한 진술문의 수(13개)보다 두 배가 되도록 하고, 긍정적 행동 진술문의 수(27개)가 부정적 진술문의 수(12개)보다 두 배 이상 많도록 하였으며, 각 집단에 대한 정적 진술문과 부적 진술문의 비율은 9 : 4로 동일하게 하였다.

전체 행동 진술문의 수는 집단 A가 B보다

두 배 많지만 집단의 바람직한 행동 진술문과 비바람직한 행동 진술문의 수의 비율이 같기 때문에 집단과 행동의 바람직성간에는 서로 상관성이 없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볼 때, 각 집단에 대한 지각과 평가는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Hamilton과 Gifford(1976)는 통계적으로 빈번하지 않은 것이 특이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수집단 A 보다는 소수집단 B의 성원이,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보다는 비바람직한 행동이 특이하게 지각되므로, 이 두 사건이 공발생하는 B집단의 비바람직한 행동의 발생빈도가 과대추정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빈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발된 특이성이 피험자로 하여금 더 많은 주의를 두게 하고, 이를 더 정교하게 부호화할 것이며, 이들이 회상할 때 더 접근가능하므로, 실제로는 서로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상관착각(illusory correlation)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집단 A보다 집단 B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Hamilton과 Gifford(1976)는 종속변인의 측정을 위해 특성 평정, 소속 집단 재인, 빈도 추정 과제를 사용하였다. 결과를 보면, 소속 집단의 재인과제에서 39개의 목록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을 파이 계수로 계산한 결과, 피험자들은 집단 B성원의 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추정 과제에서도 피험자들은 집단 B의 비바람직한 행동의 수를 실제보다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특성 평정에서 역시 집단 A가 집단 B보다 바람직한 속성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비바람직한 속성을 덜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에 대한 편파

된 지각으로 인해 평가에서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험자들이 소수 집단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을 과대추정하여 실제로는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의 바람직한 행동과 비바람직한 행동의 비율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집단을 다수 집단보다 덜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Sanbonmatsu, Shavitt, Sherman, Roskos-Ewoldsen(1987)은 소수집단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이 과대추정되는 특이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은 대상이 집단일 경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대상이 개인일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제안한다. Sanbonmatsu 등(1987)은 대상을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바꾸었을 때, 개인이라는 대상을 지각하는 관찰자들은 특출한 개인과 빈번한 행동범주의 상대적인 연합정도를 과대 추정하는 특출성(salience)에 기초한 상관착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5명의 행동 진술문을 읽게 하였고, 이들 중 한 명에게 주의를 두라고 함으로써 특출성을 조작하였다. 바람직한 진술문과 비바람직한 진술문의 진술빈도는 동일하였다. 비록 특출한 대상과 제시된 정보의 빈도 사이에는 관계가 없었지만, 피험자들은 빈번한 행동과 특출한 대상 사이의 연합정도를 과대추정하였다. 즉, 피험자들은 특출한 대상이 비특출한 대상보다 빈번한 행동을 보다 많이 수행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더불어 평가 또한 특출한 대상이 비특출한 대상보다 더 호의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Sanbonmatsu 등(1987)은 특출한 대상에 대한 오지각을 담고있는 상관착각이 개인과 집단 모두에서 나타나는

데, 개인에서는 집단에서의 방향과는 반대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집단의 경우에는 특이한 대상인 소수집단과 빈번하지 않은 행동범주와의 공발생이 과대추정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특출한 개인과 빈번한 행동범주와의 공발생이 과대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 두 가지 추론과정과 상관착각

Hastie와 Park(1986)은 기억과 판단사이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추론과정을 구별하였다. 대부분의 사회적 추론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즉, 목표인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이와 대비되는 과정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동안 즉, 그들을 본 후에 그들에 대해 추론을 하는 경우이다. 사회인지 영역에서 연구자들은 전자를 온라인 추론과정이라고 하고, 후자는 기억에 근거한 추론과정이라고 명명하였다. 기억에 근거한 추론은 관찰 이후에 만들어지며 원래의 기억 흔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온라인 추론의 경우에는 관찰하는 동안 만들어진 추론이 장기기억에 저장되어지고, 이후 판단이 요구될 때 이전에 형성된 추론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게 된다. 즉,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기억에 있는 자극사건의 비교적 직접적인 표상이 원자극인지, 아니면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원래 자극사건과는 별개로 추론된 것인지에 따라 추론과정은 기억에 근거한 추론과 온라인 양식에 의한 추론 두 가지로 구분된다.

Hamilton(1991)은 개인과 집단에서의 판단 차이가 온라인과 기억에 근거한 추론 양식에

따른 판단 차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안한 바 있다. 즉, 사람들이 개인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 일관되고 통일된 인상을 형성하려는 응집성 기대가 작용하여, 정보 처리를 하는 초기에 대상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를 온라인적으로 처리하도록 동기화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에 대해 안정되고 응집된 인상을 형성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예측력과 통제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상이 집단일 경우, 집단 대상에 대한 판단은 기억에 근거하는 경향이 있다 (Hamilton, 1991). 한 집단의 개별 성원은 서로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단의 어떤 성원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행동하는 반면, 다른 어떤 성원은 시끄럽고 분주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처럼 어느 한 집단의 성원들은 다양하게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지각자들은 집단 대상에 대해서는 초기에 일관된 인상을 형성하도록 동기화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집단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단일 개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 집단에 대한 판단의 경우에는 집단 수준과 개인 수준 모두에 대한 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집단 수준 정보의 경우, 온라인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지적 자원이 충분히 가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집단의 경우에는 통일된 인상을 형성하려는 동기적 요인도 부족하고, 가용한 인지적 자원의 한계 때문에 온라인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요인도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 추론보다는 기억에 근거한 추론이 선호된다. 즉, 지각자들은 집단에 대한 초기의 정보

처리 기간 동안에, 집단 성원들에게서 관찰되는 비일관적인 행동을 협상하려고 하거나 집단에 대해 인상을 형성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 집단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만 집단에 대한 전체 인상을 형성할 것이며, 이 때의 인상 형성은 판단 당시에 가용할 수 있는 기억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개인과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기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McConnell 등(1994)은 Hamilton (1991)의 주장을 바탕으로 집단에 대해서는 기억에 근거한 추론이,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온라인 양식에 의한 추론이 유도되는가를 검증하였다. 이들은 대상이 집단이나 개인이나에 관계없이 기억에 근거한 추론과 온라인 양식에 의한 추론을 유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지시문 유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수, 소수의 사회적 대상에 대한 지각에서 상관착각의 정보와 방향은 인상이 온라인적인 방법으로 형성되었느냐, 아니면 기억에 근거한 방법으로 형성되었느냐에 의존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특히, 소수 대상과 빈번하지 않은 행동 사이의 지각된 연합은 판단이 기억에 근거한 양식으로 내려지는 조건에서 나타날 것이고, 인상이 온라인 양식에 의해 형성되었을 때는 상관착각이 일어나지 않거나 (Pryor, 1986), 특출한 대상인 소수 대상과 빈번한 행동 사이의 부적절한 연합(Sanbonmatsu et al., 1987)이 형성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대상이 개인이나 집단이나에 관계없이 기억에 근거한 추론과 온라인 양식에 의한 추론에 따라서 상관착각이 달리 나타나리라는 이들의 예상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추론양식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못하였고,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만

호감도와 소속집단 재인에서 다수집단을 소수 집단보다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상관착각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에서는 대상이 집단인 경우 소수 대상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을 과대추정함으로써 다수 대상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특이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은 지지되었지만, 대상이 개인인 경우 소수 대상의 빈번한 행동을 과대추정함으로써 소수 대상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특출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앞에서는 인간이 사회적 대상을 지각할 때 나타나는 상관착각의 내용들을 살펴 보았으며, 상관착각이 특정 대상에 대한 인간의 고정관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잘못 지각하게 되는 정보처리 과정들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상관착각은 산업 현장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수행평가 장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팀에 대한 수행평가나 개인에 대한 수행평가에 있어서 매우 질이 높거나 반대로 매우 질이 낮은 수행은 특히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 때 특정 대상과 특정 직무수행 행동들은 공유된 특이성으로 인해 상관착각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후의 수행평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행평가 장면에서 상관착각을 다룬 연구는 Feldman 등(1986)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들의 연구는 소방수의 직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소방수들이 직무 자체에는 익숙하지만 그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에는 익숙하지 않고, 소방수의 잘한 수행과 그렇지 못한 행동 결과는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잘한 수행과 못한 수행 모두 특출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피험자에게 제시된 행동 진술문의 수는 Hamilton과 Gifford(1976)의 실험 페러다임과 같았다. Feldman 등(1986)이 그들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종속 변수로 측정된 것은 17개 행동 차원에 대한 평가 측정치, 집단 소속에 대한 재인 과제, 빈도 추정 과제였다. 이들은 4개의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어떠한 연구에서도 상관착각과 관련된 가설이 지지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수행평가 장면에서는 상관착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Feldman 등(1986)이 수행평가 장면에서 상관착각을 관찰하지 못한 이유를 달리 해석하고자 한다. Feldman 등(1986)은 집단 수행에 대한 정보 처리가 집단과 그들이 수행한 행동간의 연합에 대한 인상을 산출하고, 특이한 집단에 대응하는 원형(prototype)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Hamilton(1991)은 개인과 집단에서의 판단 차이가 온라인과 기억에 근거한 추론 양식에 따른 판단 차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 대상에 대해서는 온라인 양식에 의한 추론을 하고, 집단 대상에 대해서는 기억에 근거한 추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Feldman 등(1986)의 연구결과가 그들의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과 집단 대상에 대한 추론 양식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필자는 McConnell 등(1994)의 실험에서 대상이 집단인 경우의 특이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은 지지되었지만, 대상이 개인인 경우의 특출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은 지지되지 못한 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McConnell 등(1994)은 Hamilton(1991)의 논리에 따라 사람들이 온라인 추론을 할 때, 대상과 관련된 행동

을 부호화하고 처리하는 초기에 대상에 대한 인상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대상이 개인일 때 응집성에 대한 기대로 인해 정보를 온라인 추론 양식으로 처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조건에서 어떠한 정보처리 양식간의 대비에서도 소수대상의 빈번한 행동이 과대추정되는 상관착각을 관찰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 필자는 이들의 연구에서는 소수대상의 빈번한 행동을 과대지각할 수 있는 특출성이 조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즉, McConnell 등(1994)은 그들의 연구에서 지시문을 통해 온라인 양식에 의한 추론을 유도하고 있지만,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상관착각을 연구한 Sanbonmatsu 등(1987)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 개인 대상에게 주의를 두도록 조작하거나 자기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에 상관착각이 관찰되고 있다. 그렇다면, 강한 온라인 양식에 의한 정보추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의나 자기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특출성을 유도해야만, 특출한 대상과 그 대상의 빈번한 행동과의 연합이 과대지각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과 개인에서 상관착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지각자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추론양식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특정 대상에 대한 주의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나아가서 이러한 상관착각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수행평가가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Hamilton(1991)의 주장을 검증한 McConnell 등(1994)이 사용한 실험 패러다임과 Sanbonmatsu(1987)의 실험 패러다임을 조합하

여 주의/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 또는 개인인 경우에 3가지 정보처리 양식(온라인 추론/기억에 근거한 추론/통제조건)이 상관착각과 수행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비주의 조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이고 기억에 근거한 추론을 할 경우에는 특이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일어날 것이므로, 소수 집단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과대추정될 것이며, 따라서 다수 집단에 대해 더 호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이고 온라인 양식에 의한 추론을 할 경우에는 특이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소수 집단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과대추정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다수 집단에 대해 더 호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1* 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보다 기억 조건에서 소수 대상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상관착각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며, 다수 대상을 더 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한편, 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온라인 양식에 의한 추론을 하더라도 주의를 주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 대상의 빈번한 행동(바람직한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특출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소수 집단에 대해 더 호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경우 기억에 근거한 추론양식이 사용된 조건에서는 대상이 개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착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이 유도되었다.

**가설 2** 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과 기억 조건 모두에서 소수 대상의 빈번한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상관착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수행평가에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의 조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개인이고 온라인 추론을 할 경우에는 특출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일어날 것이므로, 소수 대상의 빈번한 행동(바람직한 행동)이 과대추정될 것이며, 따라서 소수 대상에 대해 더 호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개인이고 기억에 근거한 추론을 할 경우에는 특출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소수 대상의 빈번한 행동(바람직한 행동)이 과대추정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소수 대상에 대해 더 호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다음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3**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억 조건보다 온라인 조건에서 소수 대상의 빈번한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상관착각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며, 소수 대상을 더 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한편,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는 기억에 근거한 추론을 하더라도 온라인 추론을 유도하는 주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상쇄되어 소수 집단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과대지각하

는 특이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다수 집단에 대해 더 호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온라인 추론양식이 사용된 조건에서는 대상이 집단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착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이 유도되었다.

**가설 4**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과 기억 조건 모두에서 소수 대상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상관착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수행평가에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런 정보처리 양식도 조작하지 않은 통제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주의가 주어지지 않은 비주의 통제 조건에서는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 소수 집단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특이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일어날 것이며, 주의가 주어진 주의 통제조건에서는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 소수 대상의 빈번한 행동(바람직한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특출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수행평가 또한 비주의/통제/집단 조건에서는 다수 대상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주의/통제/개인 조건에서는 소수 대상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5** 통제조건에서 비주의/집단 대상인 경우에는 소수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이 과대지각되어 다수를 더 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주의/개인 대상인 경우에는 소수의 빈번한 행동

이 과대지각되어 소수를 더 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 방 법

### 피험자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학부생들 중에서 실험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1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 실험설계

실험설계는 대상 유형 두 수준(집단, 개인), 정보처리 유형 세 수준(온라인조건, 통제조건, 기억조건), 및 주의 두 수준(비주의, 주의)의 세 변인 모두가 피험자간 변인인 3원 완전무선 설계가 사용되었다.

### 실험재료

피험자들에게 대상에 관해 제시하는 실험재료 진술문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피험자인 학생들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진술문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68개의 행동 진술문들을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67명의 학부생들로 하여금 각각이 공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지 그 바람직한 정도를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한 평정치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24개의 공부에 도

움이 되는 행동 진술문과 12개의 공부에 방해가 되는 행동 진술문들을 선정하였다.

24개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행동 진술문들 중에서 16개는 다수 대상의 행동으로 사용되었고, 8개는 소수 대상의 행동으로 사용되었다. 물론, 다수 대상 행동 진술문의 바람직한 정도( $M=5.5, SD=1.01$ )와 소수 대상 행동의 바람직한 정도( $M=5.5, SD=0.98$ )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나머지 12개의 공부에 방해가 되는 행동 진술문들 중에서 8개는 다수 대상의 행동으로 사용되었고, 4개는 소수 대상의 행동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도, 다수 대상 행동 진술문의 바람직한 정도( $M=2.75, SD=1.06$ )와 소수 대상 행동의 바람직한 정도( $M=2.71, SD=1.02$ )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도록 구성하였다.

### 실험절차

실험의 전 과정은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하였다. 피험자가 실험실에 들어오면, 12개의 실험 조건을 표시한 종이 중에서 하나를 무선적으로 뽑도록 한 후, 뽑혀진 종이에 표시되어 있는 조건에 피험자를 할당하였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실험을 시작하게 된다.

피험자가 컴퓨터 앞에 앉으면 실험자는 화면에 제시되는 지시문을 뒤에서 읽어 주고, 피험자로 하여금 눈으로 따라 읽도록 하였다. 먼저, 피험자에게 이 실험은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알아 보는 실험이라고 소개한 후, 실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후, 정보처리 양식과 주의를 조작하기 위한 지시문을 2번에 걸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제시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피험자에게 ‘영수’와 ‘수빈’이라는 이름의 두 대학생의 (또는 집단 A와 집단 B라는 스터디 그룹 학생들의) 일상적인 행동들이 화면에 제시될 것이므로 눈으로 따라 읽도록 하였다. 공부에 관련된 행동 진술문들은 8초 간격으로 하나씩 총 36개가 제시되었다. 진술문이 모두 제시된 후에는 차폐과제를 3분 동안 실시하였고, 끝으로 질문지를 통해서 종속변인을 측정하였다.

### 독립변인 조작

정보처리 양식에 대한 조작: McConnell 등 (1994)의 실험에서 사용된 지시문과 동일한 지시문을 제공하였다.

(1) 온라인 조건: 집단과 개인 조건 모두 온라인 정보처리 양식에서는 집단 A와 집단 B, 또는 ‘영수와 수빈’에 대해 일관되고 통일된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라고 지시하였고, 모든 진술문 제시가 끝난 후 이들 대상에 관해 질문을 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2) 통제 조건: 집단과 개인 조건 모두 통제 조건의 피험자들에게는 제시되는 진술문을 최대한 많이 기억하라고 지시하였고, 모든 진술문 제시가 끝난 후 이들 대상에 관해 질문을 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3) 기억 조건(기억에 근거한 정보처리 양식 조건): 집단과 개인 조건 모두 기억 조건에서는 화면에 제시된 진술문 각각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얼마나 잘 이해될 수 있을지의 정도를 판단하면서 진술문을 읽으라고 지시하였고, 모든 진술문 제시가 끝난 후 이들 대상에 관해 질문을 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주의에 대한 조작: Sanbonmatsu(1987)의 실험에서 사용된 주의 조작 방법 중 실험자가 지시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 주의를 두고 읽으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 비주의 조건: 집단과 개인 조건 모두에서 정보처리 양식에 대한 조작 이외에 특정 집단 또는 특정 개인에 대한 주의를 지시하지 않았다.

(2) 주의 조건: 집단과 개인 조건 모두에서 소수로 등장하는 집단 B와 ‘수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것이므로 집단 B와 ‘수빈’이라는 인물에 주의를 두고 읽으라는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 종속변인 측정

대상할당지표에 사용된 문항: 화면에 제시되었던 36개의 행동 진술문들을 소속집단과 이름을 뺀 상태로 다시 무선적으로 피험자에게 제시하였다. 각각의 진술문에 대해 그것이 누구의 행동이었는지를 피험자들에게 적어 넣도록 하였으며,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추정을 해서 한 문항도 빠뜨리지 않고 기입하라고 하였다. 다수 대상에게 할당된 긍정적 행동(공부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비율에서 다수 대상에게 할당된 부정적 행동(공부에 방해가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비율을 뺀 값으로 대상할당지표의 값을 산출하였다. 여기서, 양(+)의 값이 나오면 소수에 비해 다수 대상에게 긍정적 행동을 더 많이 할당했다는 것이므로, 양(+)의 값은 다수 대상을 더 정적으로 (또는 소수 대상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특이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유도되었음을 의미하고, 음(-)의 값은 소수 대상을 더 정적으로 평가하

는 특출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유도되었음을 의미한다.

빈도추정지표에 사용된 문항: 대상할당 작업이 끝난 후, 피험자들에게 다수 대상에 관한 진술문이 24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긍정적인 행동이 몇 개였고 부정적인 행동이 몇 개였는지를 물어 보았다. 마찬가지로, 소수 대상에 관한 진술문이 12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긍정적인 행동이 몇 개였고 부정적인 행동이 몇 개였는지를 물어 보았다. 빈도추정지표의 값은 다수의 긍정적 행동빈도 비율에서 소수의 긍정적 행동빈도 비율을 뺀 값으로 구하였다. 여기서 양(+)의 값이 나오면 다수가 소수보다 긍정적 행동을 더 많이 했다고 지각하는 것이므로, 양(+)의 값은 소수 대상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특이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유도되었음을 의미하고, 음(-)의 값은 소수 대상을 더 정적으로 평가하는 특출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유도되었음을 의미한다.

수행평가에 사용된 문항: 수행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험자들에게 각각의 대상 중에서 누가 더 공부를 잘할 것인지의 정도를 총 4개의 문항으로(절대 평가 2문항, 상대 평가 2문항) 물어보았다. 절대 평가에 대해서는 9점 척도(1점: 매우 못할 것이다 ~ 9점: 매우 잘할 것이다)상에서 표시하게 하였으며, 상대 평가에 대해서는 두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항과 9점 척도(예; 1점: 집단 B가 매우 잘 할 것이다 ~ 9점: 집단 A가 매우 잘 할 것이다)를 사용하였다.

이전의 상관착각 연구들에서는 행동 진술문이 제시된 후 그들이 갖고 있는 기억이나 인상 정도에 의해서 대상에 대한 호의도 평정을 실

시하였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실제 수행평가 장면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하여 개인의 프로파일에 해당할 수 있는 대상할당지표를 참고하여 대상에 대한 평가를 내리도록 하였다. 대상할당지표를 참고함으로써 피험자의 기억이나 인상에 강하게 남아있는 특정한 한 진술문에 의해서 대상을 평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곧 수행평가 장면에서 개인의 프로파일을 갖고 평가자가 평가를 내리는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결 과

### 독립변인 조작 확인

정보처리 양식: 정보처리 양식의 각 조건에서 피험자에게 실험자가 지시한 정보처리 양식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9점 척도를(예, 1점: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다 ~ 9점: 완전한 인상을 형성하려고 했다) 사용하여 물어보았다. 각 조건에서 사용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조건: 당신은 대상에 대한 진술문을 읽을 때 어느 정도나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려했습니까?

통제 조건: 당신은 대상에 대한 진술문을 읽을 때 어느 정도나 진술문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셨습니까?

기억 조건: 당신은 대상에 대한 진술문을 읽을 때 어느 정도나 진술문 내용을 초등학교 학생에게 이해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읽으셨습니까?

정보처리 양식에 따른 조작체크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온라인 조건에 있는 피험자들에게 “어느 정도나

표 1. 정보처리 양식에 대한 조작체크 문항의 평균(표준편차)

	정보처리 양식			
	온라인	통제	기억	전체
온라인 조건에 대한 조작체크	6.90(1.15)	5.23(1.88)	4.95(1.72)	5.69(1.82)
통제 조건에 대한 조작체크	4.87(1.62)	6.48(1.43)	4.83(2.12)	5.39(1.90)
기억 조건에 대한 조작체크	1.95(1.41)	1.58(1.09)	6.93(1.34)	3.49(2.76)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려 하였습니까?”라고 물어본 결과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처리 양식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168)=24.93, p<.01$ . 즉, 피험자들은 통제 조건( $M=5.23$ )과 기억 조건( $M=4.95$ )에서 보다 온라인 조건( $M=6.90$ )에서 더 전체적인 인상을 하려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제 조건에 있는 피험자들에게 “어느 정도나 많은 내용을 기억하려 하였습니까?”라고 물어본 결과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처리 양식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2,168)=18.06, p<.0001$ . 즉, 피험자들은 온라인 조건( $M=4.87$ )과 기억 조건( $M=4.83$ )에서 보다 통제 조건( $M=6.48$ )에서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하려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억 조건에 있는 피험자들에게 “어느 정도나 초등학교 학생에게 이해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읽으셨습니까?”라고 물어본 결과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처리 양식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2,168)=320.93, p<.0001$ . 즉, 피험자들은 통제 조건( $M=1.58$ )과 온라인 조건( $M=1.95$ )에서 보다 기억 조건( $M=6.93$ )에서 초등학교 학생에게 이해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진술문을 읽으려 노력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주의유무: 주의유무에 대한 조작체크를 위하여 “당신은 누구에게 주의를 두고 진술문을 읽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피험자들로 하여금 9점 척도(집단 조건 예:1-집단 A에 주의를 두고 읽었다 ~ 9-집단 B에 주의를 두고 읽었다) 상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피험자들의 반응을 변량분석한 결과, 주의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2,168)=122.21, p<.01$ . 피험자들은 비주의 조건( $M=4.13$ )에서 보다 주의 조건( $M=6.32$ )에서 소수 대상(집단 B 또는 '수빈')에게 더 많은 주의를 두고 읽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대상할당지표에 대한 분석

피험자들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읽었던 진술문들이 누구의 행동이었는지를(집단: A/B, 개인: '영수/수빈') 기입하도록 해서 얻은 대상할당지표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비교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면, 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 $M=0.85$ ) 보다 기억 조건( $M=1.99$ )에서 대상할당지표 값이 더 큰 양(+ )의 값을 보이고 있지만, 이 둘 간의 사전비

표 2. 대상할당지표의 평균(표준편차)

	비주의			주의		
	온라인	통제	기억	온라인	통제	기억
집단	0.85(2.06)	1.55(2.41)	1.99(3.10)	-0.84(2.47)	-0.46(2.38)	0.47(2.46)
개인	0.20(1.45)	-0.69(2.25)	-0.04(1.85)	-1.90(2.23)	-1.17(2.55)	-0.08(1.58)
전체	0.52(1.78)	0.43(2.56)	0.97(2.71)	-1.37(2.37)	-0.82(2.45)	0.19(2.05)

표 3. 대상할당지표에 대한 사전비교

비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p
비주의/집단에서 온라인 vs 통제 (가설1)	9.76	1	9.76	1.89	
비주의/개인에서 온라인 vs 통제 (가설2)	5.94	1	5.94	1.15	
주의/개인에서 온라인 vs 통제 (가설3)	24.75	1	24.75	4.79	$p < .01$
주의/집단에서 온라인 vs 통제 (가설4)	1.08	1	1.08	0.21	
통제/비주의/집단 vs 통제/주의/개인 (가설5)	55.49	1	55.49	10.75	$p < 0.1$
오차	867.17	168	5.16		

교 결과는 유의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68)=1.89$ , *ns*. 따라서, 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보다 기억 조건에서 소수 대상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부정적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상관착각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 $M=0.20$ )과 기억 조건( $M=-0.04$ ) 간에 대상할당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68)=1.15$ , *ns*. 이러한 결과는 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과 기억 조건 모두에서 소수 대상의 빈번한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상관착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억 조건( $M=-0.08$ ) 보다 온라인 조건( $M=-1.90$ )에서 대상할당지표 값이 더 작은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둘 간의 사전비교 결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68)=4.79$ ,  $p < .01$ . 따라서,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억 조건보다 온라인 조건에서 소수 대상의 빈번한 행동(긍정적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상관착각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 $M=-0.84$ )과 기억 조건( $M=0.47$ ) 간에 대상할당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68)=0.21$ , *ns*. 이러한 결과는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과 기억 조건 모두에서 소수 대상의 빈번

한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상관착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끝으로, 통제 조건에서의 사전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비주의/집단 조건( $M=1.55$ )에서는 대상할당지표가 양(+)의 값으로 나타났고, 주의/개인 조건( $M=-1.17$ )에서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 둘 간의 사전비교 결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68)=10.75, p<.01$ . 따라서, 통제 조건에서 비주의/집단 대상인 경우에는 소수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이 과대지각되어 다수를 더 정적으로 평가하는 특이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일어날 것이며, 통제 조건에서 주의/개인 대상인 경우에는 소수의 빈번한 행동이 과대지각되어 소수를 더 정적으로 평가하는 특출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 5가 지지되었다. 각 조건별 대상할당지표를 비주의와 주의 조건으로 나누어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1과 같다.

### 빈도추정지표에 관한 분석

피험자들에게 다수 대상에 관한 24개의 진술문 중 긍정적인 행동이 몇 개였고 소수 대상에 관한 12개의 진술문 중 긍정적인 행동이 몇 개였는지를 응답하도록 해서 얻은 빈도추정지표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비교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각 조건별 빈도추정지표를 비주의와 주의 조건으로 나누어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2와 같다.

표 4에서 보면, 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 $M=0.83$ ) 보다 기억 조건( $M=1.31$ )에서 빈도추정지표 값이 더 큰 양(+)의 값을 보이고 있지만, 이 둘 간의 사전비교 결과는 유의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68)=0.74, ns$ . 따라서, 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 보다 기억 조건에서 소수 대상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부정적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상관착각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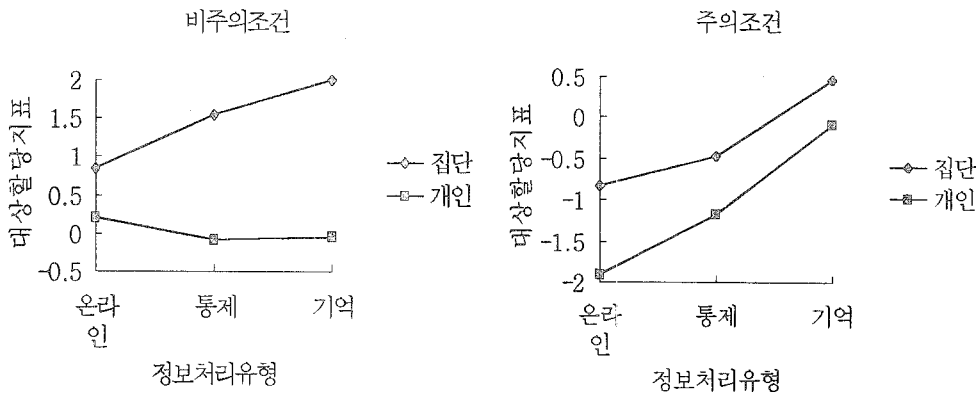


그림 1. 비주의/주의 조건에서 정보처리 유형과 대상 유형에 따른 대상할당지표의 평균

표 4. 빈도추정지표의 평균(표준편차)

	비주의			주의		
	온라인	통제	기억	온라인	통제	기억
집단	0.83(1.13)	1.51(1.66)	1.31(1.16)	-0.08(1.70)	-0.07(1.82)	0.19(2.05)
개인	0.28(0.97)	0.45(1.56)	0.45(1.06)	-1.15(1.44)	0.25(1.36)	0.42(1.69)
전체	0.56(1.07)	0.98(1.67)	0.88(1.17)	-0.62(1.64)	0.09(1.59)	0.30(1.85)

표 5. 빈도추정지표에 대한 사전비교

비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p
비주의/집단에서 온라인 vs 통제 (가설1)	1.68	1	1.68	0.74	
비주의/개인에서 온라인 vs 통제 (가설2)	0.22	1	0.22	0.10	
주의/개인에서 온라인 vs 통제 (가설3)	18.53	1	18.53	8.21	$p < .01$
주의/집단에서 온라인 vs 통제 (가설4)	0.55	1	0.55	0.24	
통제/비주의/집단 vs 통제/주의/개인 (가설5)	11.91	1	11.91	5.30	$p < .01$
오차	379.17	168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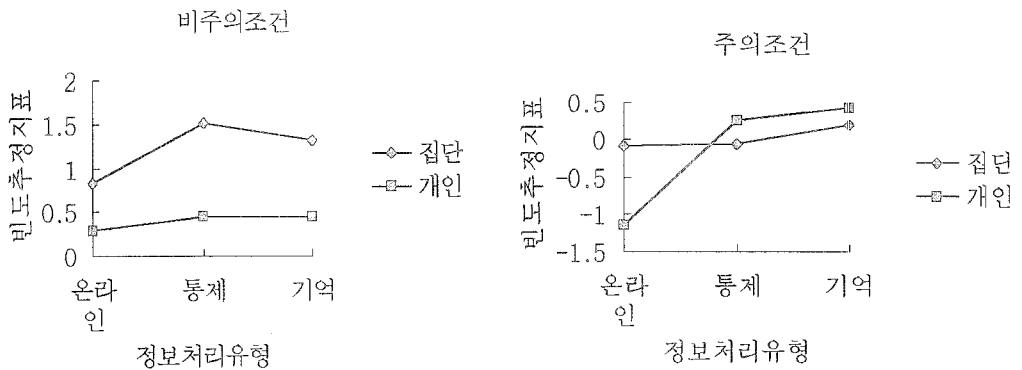


그림 2. 비주의/주의 조건에서 정보처리 유형과 대상 유형에 따른 빈도추정지표의 평균

되지 못하였다.

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 $M=0.28$ )과 기억 조건( $M=0.45$ ) 간에

빈도추정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68)=0.10$ ,  $ns$ . 이러한 결과는 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과 기억 조건 모두에서 소수 대상의 빈번한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상관착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억 조건( $M=0.42$ ) 보다 온라인 조건( $M=-1.15$ )에서 빈도추정지표 값이 더 작은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둘 간의 사전비교 결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68)=8.21, p<.01$ . 따라서,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억 조건보다 온라인 조건에서 소수 대상의 빈번한 행동(공정적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상관착각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 $M=-0.08$ )과 기억 조건( $M=0.19$ ) 간에 빈도추정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68)=0.24, ns$ . 이러한 결과는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과 기억 조건 모두에서 소수 대상의 빈번한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상관착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끝으로, 통제 조건에서의 사전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비주의/집단 조건( $M=1.51$ )에서는 주의/개인 조건( $M=0.25$ )에 비해 빈도추정지표가 더 큰 양(+의 값)으로 나타났고, 이 둘 간의 사전비교 결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68)=5.30, p<.01$ . 따라서, 통제 조건에서 비주의/집단 대상인 경우에는 소수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이 과대지각되어 다수를 더 정적으로 평가하는 특이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일어날 것이며, 통제 조건에서 주의/개인 대상인 경우에는 소수의 빈번한 행동이 과대지각되어 소수

를 더 정적으로 평가하는 특출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 5가 지지되었다.

### 수행평가에 관한 분석

피험자들에게 각각의 대상 중에서 누가 더 공부를 잘할 것인지의 정도를 평정하도록 해서 얻은 수행평가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6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비교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보면, 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 $M=1.80$ ) 보다 기억 조건( $M=2.67$ )에서 수행평가 값이 더 큰 양(+의 값을 보이고 있지만, 이 둘 간의 사전비교 결과는 유의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68)=1.19, ns$ . 따라서, 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보다 기억 조건에서 소수 대상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부정적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상관착각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 $M=-0.27$ )과 기억 조건( $M=0.40$ ) 간에 수행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68)=0.71, ns$ . 이러한 결과는 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과 기억 조건 모두에서 소수 대상의 빈번한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상관착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억 조건( $M=0.27$ ) 보다 온라인 조건( $M=-2.00$ )에서 수행평가 값이 더 작은 음(-)의

표 6. 수행평가의 평균(표준편차)

	비주의			주의		
	온라인	통제	기억	온라인	통제	기억
집단	1.80(1.78)	2.93(1.53)	2.67(1.35)	-0.27(2.22)	0.07(3.26)	0.40(2.90)
개인	-0.27(1.75)	0.93(2.25)	0.40(2.29)	-2.00(1.36)	-0.60(1.92)	0.27(2.55)
전체	0.77(2.03)	1.93(2.15)	1.53(2.18)	-1.13(2.01)	-0.27(2.65)	0.33(2.68)

표 7. 수행평가에 대한 사전비교

비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p
비주의/집단에서 온라인 vs 통제 (가설1)	5.63	1	5.63	1.19	
비주의/개인에서 온라인 vs 통제 (가설2)	3.37	1	3.37	0.71	
주의/개인에서 온라인 vs 통제 (가설3)	38.53	1	38.53	8.15	$p < .01$
주의/집단에서 온라인 vs 통제 (가설4)	3.37	1	3.37	0.71	
통제/비주의/집단 vs 통제/주의/개인 (가설5)	93.46	1	93.46	19.80	$p < .01$
오차	794.13	168	4.72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둘 간의 사전비교 결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68)=8.15$ ,  $p < .01$ . 따라서,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억 조건보다 온라인 조건에서 소수 대상의 빈번한 행동(긍정적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상관착각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 $M=-0.27$ )과 기억 조건( $M=0.40$ ) 간에 수행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68)=0.71$ , *ns*. 이러한 결과는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는 온라인 조건과 기억 조건 모두에서 소수 대상의 빈번한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상관착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4>

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끝으로, 통제 조건에서의 사전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비주의/집단 조건( $M=2.93$ )에서는 주의/개인 조건( $M=-0.60$ )에 비해 수행평가가 더 큰 양(+의 값)으로 나타났고, 이 둘 간의 사전비교 결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68)=19.80$ ,  $p < .01$ . 따라서, 통제 조건에서 비주의/집단 대상인 경우에는 소수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이 과대지각되어 다수를 더 정적으로 평가하는 특이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일어날 것이며, 통제 조건에서 주의/개인 대상인 경우에는 소수의 빈번한 행동이 과대지각되어 소수를 더 정적으로 평가하는 특출성에 기초한 상관착각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 5가 지지되었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과 개인에서 상관착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지각자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추론양식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특정 대상에 대한 주의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나아가서 이러한 상관착각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수행평가가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주의/비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 또는 개인인 경우에 3가지 정보처리 양식(온라인 추론/기억에 근거한 추론/통제조건)이 상관착각과 수행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먼저, 비주의 집단 조건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정보처리 양식 간에 차이를 검증하였다. 즉, 기억에 근거한 정보추론과 온라인 양식에 의한 정보추론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가설 1의 결과는, 비록 유의도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집단을 대상으로 한 상관착각연구결과가 기억에 근거한 정보추론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Hamilton(1991)은 대상이 집단일 경우에는 대상에 대해 통일되고 일관된 인상을 형성하려는 응집성 기대가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집단에 대한 정보 통합은 단순한 온라인 방식이 아닌, 복잡한 방식으로 정보가 통합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집단에 대한 평가는 판단이 요구되는 당시의 기억 정보에 의존하는 기억에 근거한 방식으로 내려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는 온라인적 추론 보다는 기억에 근거한 추론이 사용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비주의 개인 조건에서는 온라인 조건과 기억 조건 간에 상관착각에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음으로써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McConnell 등(1994)의 연구가 개인 조건에서 어떠한 정보처리 양식간의 대비에서도 소수대상의 빈번한 행동이 과대추정되는 상관착각을 관찰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결과이다. McConnell 등(1994)의 연구가 개인 조건에서 상관착각을 관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필자는 이들의 연구에서는 소수대상의 빈번한 행동을 과대지각할 수 있는 특출성이 조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McConnell 등(1994)은 그들의 연구에서 지시문을 통해 온라인 양식에 의한 추론을 유도하고 있지만,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상관착각을 연구한 Sanbonmatsu 등(1987)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 개인 대상에게 주의를 두도록 조작하거나 자기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에 상관착각이 관찰되고 있다. 그렇다면, 강한 온라인 양식에 의한 정보추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의나 자기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특출성을 유도해야만, 특출한 대상과 그 대상의 빈번한 행동과의 연합이 과대지각될 수 있다고 본다. 비주의 개인 대상인 경우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이 점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개인 대상에 대해 주의를 통한 특출성이 유도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적 추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주의 조건에서 얻어진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Hamilton(1991)은 대상이 개인일 때, 지각자는 대상 인물이 통일되고 일관된 전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은 이러한 일관된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개인의 본질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기본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개인 대상에 대한 정보의 통합

은 온라인 방식에 따라 다양한 행동 정보를 단일하고 일관된 인상으로 통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적 추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개인 대상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주의가 포함된 개인 조건에서 온라인 양식에 의한 정보 추론과 기억에 근거한 정보 추론을 사용케 한 조건 간에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즉, 가설 3에서 얻어진 결과를 보면, 주의를 받게된 개인에 대해 일관된 인상을 형성하도록 지시했던 조건에서는 다수행동인 공부에 도움되는 행동을 과대지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응집된 인상형성을 방해하는 기억조건에서는 주의를 둔 대상의 다수행동인 공부에 도움되는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상관착각 연구결과들과 일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을 대상으로 상관착각을 연구했던 연구들은 자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 관련된 정보가 바로 주의를 이끌고, 이러한 정보는 다른 정보보다 더 깊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Kuiper & Rogers, 1979; Rogers, Kuiper, Kirker, 1977). 자기라는 자체가 하나의 개별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관련된 정보에 응집된 인상을 형성하기를 기대하며, 따라서 자기 관련된 정보는 온라인 양식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자기 관련된 정보는 다른 정보보다 더 주의를 끌게 된다고 주장한다 (Sanbonmatsu 1986). 그러므로, 지각자들은 자기 관련된 정보나 주의를 둔 특출한 대상의 바람직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동일한 정도의 바람직한 행동을 갖고 있는 타인보다 더 호의적인 방식으로 편파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한편, 주의가 주어진 집단 조건에서는 온라인 조건과 기억 조건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가설 4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 조건에서 대상이 집단일 때에는 기억에 근거한 정보추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주의라는 온라인적 정보처리를 유발하는 기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착각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통제 조건에서 얻어진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보처리 양식을 유도하는 아무런 지시문도 사용되지 않은 통제 집단 중에서 주의를 두지 않은 집단 조건과 주의를 둔 개인 조건이 두 가지의 상관착각 유형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곳이다. 이 두 조건에서 상관착각의 두 범주인 소수 대상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을 과대추정함으로써 다수 대상을 더 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와 소수 대상의 빈번한 행동을 과대추정함으로써 소수 대상을 더 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나타남으로써 가설 5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산업 장면에서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에 대한 수행평가 장면에서는 주의를 두고 있는 특정 대상의 빈번한 행동을 과대추정하여 그 사람에 대해 정적 편파가 작용할 수 있으며, 집단에 대한 수행평가 장면에서는 소수 집단의 빈번하지 않은 행동을 과대추정하여 오히려 다수 집단에 대해 정적 편파가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편파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왜곡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왜곡은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비록 본 연구가 산업 현장의 특정 직무에 대한 수행평가는 아니었지만, 피험자를 대학생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에게 산업장면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수행(공부)에 관련된 평가를 내리게 한다면 산업 현장에서의 수행평가 상황과 가장 유사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진술문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행동과 공부에 방해되는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은 극단적인 대비상황이 아니라 다수를 이루는 중간정도의 상황에서 드물게 중간 이상의 정적/부적행동을 접하게 된다. 산업 장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좀더 현실적인 상황에서 상관착각과 수행평가의 관계를 다루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관련된 정보를 뺀 상태에서 소수 대상의 빈번한 행동이 과대지각되는지를 다루고 있다. 소수대상의 빈번한 행동을 과대지각하는 상관착각을 연구했던 연구자들은 자기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면 주의를 끌게 되고, 자기에 대해 하나의 응집된 기대를 형성하려하기 때문에 온라인적 처리가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의를 직접적으로 조작하였고 자기 관련성의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은 동기적 기제에 따른 설명을 할 수 없음이 하나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추후에 자기 관련성의 개념을 포함시켜 상관착각에서의 동기적 요인을 연구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정보처리양식 조작에 사용한 것은 지시문을 통한 조작이었다. 온라인 정보처리 양식은 높은 수준의 정보회상, 기억과

판단사이의 낮은 상관, 회상에서의 초두효과(primacy effect), 회상에서의 빠른 반응시간 등을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억에 근거한 정보처리양식은 회상에서의 전반적으로 빈약한 수준, 회상에서의 최신효과(recency effect), 느린 회상 반응시간, 판단과 기억사이의 강한 상관 등을 가정한다(McConnell, 1994). 본 연구에서는 비록 정보처리 양식에 대한 조작은 성공적이었지만 위와 같은 변인들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과연 온라인 또는 기억에 근거한 추론을 사용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알아 보는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Feldman, J. M., Camburn, A., & Gatti, M. (1986). Shared distinctiveness as a source of illusory correlation in performance appraisal.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7, 34-59
- Hamilton, D. L., & Gifford, R. K.(1976). Illusory correlation in interpersonal perception: A cognitive basis of stereotypic judge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392-407.
- Hamilton, D. L., & Katz, L. B., Leirer, V. O. (1980). Cognitive representation of personality impressions: Organizational processes in first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050-1063.

- Hastie, & Park, B. B.(1986).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judgement depends on whether the judgement task is memory-based or on-line. *Psychological Review*, 93, 258-268.
- Kuiper, N. A., & Rogers, K. E. (1979). Encoding of personal information: Self-other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499-514.
- Lichtenstein, M., & Srull, T. K.(1987). Processing objectives as a determina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call and judge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3, 93-118.
- McArther, L. Z., & Solomon, L. K. (1978). Perceptions of an aggressive encounter as a function of the victim's salience and the perceiver's arou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278-1290.
- McConnell, A. R., & Sherman, S. J., & Hamilton, D. L.(1994). Illusory correlation in the perception of group: An extension of the distinctiveness-based accou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414-429.
- McConnell, A. R., & Sherman, S. J., & Hamilton, D. L.(1994). On-line and Memory-based aspects of individual and group target judg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73-185.
- Pryor, J. B. (1986). The influence of different encoding sets upon the formation of illusory correlations and group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Bulletin*, 12, 216-226.
- Sanbonmatsu, D. M., & Shavitt, S., & Gibson, B. D.(1994). Salience, Set size, and Illusory Correlation: Making Moderate Assumptions About Extreme Targe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020-1033.
- Sanbonmatsu, D. M., Shavitt, S. Sherman, S. J., & Roskos-Ewoldsen, Jr.(1987). Illusory correlation in the perception of performance by self or a salient othe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3, 518-543.
- Spears, van der Pligt, & Eiser(1985). Illusory correlation in the perception of group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863-875.
- Srull, T. K., & Wyer, R. (1989). Person Memory and Judgement. *Psychological Review*, 96, 58-83.

1차 원고 접수: 1999. 9. 22.

최종 원고 접수: 2000. 5. 22.

## Effects of Attention and Judgmental Encoding in Individual and Group Targets on Illusory Correl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Yongwon Suh · Young Seok Ha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figure out the reason why the illusory correlation phenomena differ in individual and group targets. Hamilton(1991) proposes that a distinctiveness-based illusory correlation occurs with a group target, whereas a salience-based illusory correlation occurs with an individual target because of the expectancy to form a consistent and unified impression to the individual target. We hypothesize that whether or not the attention is given to the target and whether the judgmental encoding is made in an on-line fashion or memory-based fashion might be responsible for the difference. To prove this, a completely randomized 2(attention, no-attention) by 3(on-line, memory-based, control) by 2(individual, group)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180 subjects. Dependent variables included target assignment, frequency estimat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showed that when no attention was given,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on-line and memory-based conditions with a group target,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with an individual target, as expected. On the other hand, when the attention was given,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on-line and memory-based conditions with a group target, bu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with an individual target. These results imply that illusory correl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which could result in the biased evaluation in both individuals and groups. Other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discussed.